

‘원조 국민MC’ 송해

“일본에 당한 36년의 핏박 천년을 풀어도 다 못 풀어”

원조 국민 MC, 영원한 현역, 모두의 �빠... KBS 1TV '전국노래자랑'의 상징이자 MC인 송해(본명 송복희·92)를 수식하는 말은 많다.

약 30년간 매주 전국 팔도강산을 누빈 송해는 그중에 '�빠'라는 말이 여전히 가장 마음을 설레게 한다고 했다. "양평에 갔을 때는 105세 된 누님도 나한테 오빠라고 했어. 나처럼 동생 많은 사람이 없나니까. 오패라고만 하면 그저 좋아." 곧 광복절을 앞두고 9년 만에 울릉도를 찾아 특집을 소화한 송해를 만났다. 뱃길 여정이 험했을 텐데, 오히려 에너지를 받아왔는지 역시 긍정했다. 이야기보따리 역시 막힘이나 끊김이 없었다.

송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올해, 광복절 특집으로 울릉도를 찾은 데 대해 "감동이었어, 평생에 겪은 것을 다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라고 박찬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진 그의 역사는 곧 한국 근현대사였다.

"난 일제강점기도 겪었잖아. 내가 국민학생 때 일본 기마병이 많았어요. 그래서 마초(馬草)가 많이 필요했고, 우리는 공부보다도 마초 말려 보내느라 풀 베러 많이 다녔지. 내선일제, 창씨개명(일본식 성명 강요)... 그런 세월을 보내고 광복이 와서, 온 민족이 '이제 우리 진짜 잘살아 보자' 했는데 바로 동족상잔이 일어났잖아. 그 바람에 나는 얼떨결에 남한으로 와서 혈혈단신이 됐고, 지금은 이렇게 연에게 생활을 하고 있지."

황해도 재령에서 태어난 송해는 해주 예술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했으나 피난길에 가족과 헤어져 남한에 왔고, 창공악극단으로 데뷔했다가 뛰어난 입담으로 사람들을 사로잡으며 국민 MC가 됐다.

‘전국노래자랑’ 광복절 특집 울릉도서 하니 감동 황해도 고향특집 하고파 상상만 해도 눈물이 난다

인생 자체가 드라마인 셈이다.

송해는 "이번에 자유롭게 많은 분 앞에서 노래하고 손뼉 치자니, 고향(북한)에도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이 나더라"며 "고향 특집은 상상만으로도 목이 맨다. '내 고향에 내가 왔습니다' 하고 나면 말을 잊지 못할 것 같다"라고 했다.

그는 북한에 여동생이 있다. 그동안 이산가족 상봉이 몇 차례 있었지만 닿지는 못했다.

그는 "고향에 가도 강산은 있었지만 다른 건 다 변했을 거라는 말을 들으니 스스로 좀 작아지더라"며 "누이동생도 하나 있는데 나이가 아흔이 넘는다. 그래도 희망을 가져보려 한다"라고 소망했다.

송해는 광복절 특집, 남북관계를 이야기하며 최근 긴박하고 험난한 국내외 정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구상에서 반 토막이 난 것도 우리 하나뿐이고, 지형적으로도 강대국들 사이에 바짝 끼어서 더더욱 어렵지. 강대국들이 힘을 쥐고 있으니 현실적으로 눈치를 안 볼 수도 없고, 작년 남북정상회담 때는 마음이 벅찼는데, 이후에 미국·중국과의 관계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어쨌든 민간인들은 자유롭게 만나고 서신 왕래도 좀 했으면 좋겠어."

그는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서는 "하루하루 급변하는 세상에서 일본은

부인할 수 없는 이웃이니 감정만 갖고 싸우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36년 긴 세월 우리에게 준 핏박은 무엇으로 갚아 줄 수 없는 것이다. 천년을 풀어도 다 풀 수 없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송해는 이어 "울릉도 편을 통해 조국 독립, 남북통일 등의 진정한 의미가 전달 되길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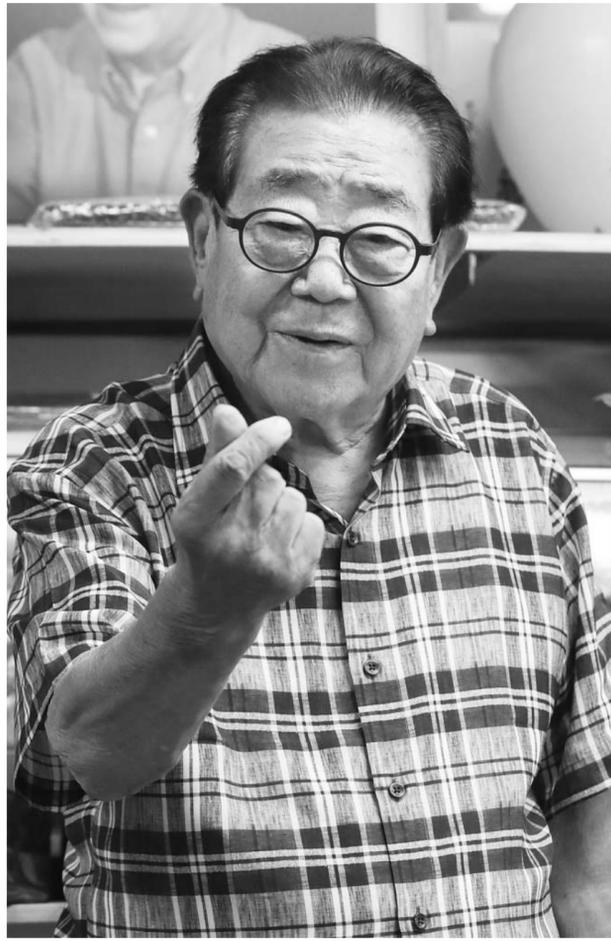
그는 이번 광복절 특집에 저동초등학교 학생들과 독도 경비대로 참여했으며, 다양한 우리 노래를 선보여 객석 절반이 눈물바다였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이처럼 '전국노래자랑'은 모든 편이 '화합의 장'이다.

송해 역시 "지역 갈등, 고부 갈등, 직업 간 갈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갈등, 성별과 세대 간 갈등이 '전국노래자랑'에서는 해소된다. 서로 손뼉을 쳐주고 용기를 얻는다"라며 "이 프로그램은 '내 인생의 교과서'라고 말했다.

'전국노래자랑'이 40주년, 50주년을 맞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송해의 건강이다. 일요일 낮이면 늘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그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우리는 매주 '전국노래자랑'을 보며 국민 MC의 건강을 확인하고, 또 안심한다.

가끔 감기를 앓아도 하루 이틀이면 털고 일어나는 송해는 "나는 잡식이고, 운동도 열심히 안 한다. 적당히 술 먹고 여행을 열심히 다닌다. 또 세 끼는 꼭 제때 챙겨 먹는다"라며 "피곤해도 바짝 정신 차리고 '전국노래자랑 해야지' 생각한다. 뭘 한다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했다. 애주가로 유명한 그는 "술에 지면 나쁜



거지만 지지 않으면 그게 보약이다. 북쪽에서 소주를 많이 먹기 때문에 지금도 소주밖에 못 먹는다"라고 웃었다.

송해는 지난해 배우자 석옥이 씨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다. 그는 빈소에서 취재진에 "가고 싶어도 같이 못 가는 개인생이다. 곧 따라갈 테니 기다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반쪽이 떨어져 나간 고통이었겠다"는 말에 잠시 말을 잊지 못하던 송해는 "세월이 흐를수록 침심통제가 됐다. 아내가 먼저 가면 그 순간부터 초라해지는 게 남자들. 집에 돌아오면 인사하는 사람도 없

고, 나갈 때 잘 가라는 사람도 없으니"라고 아픈 마음을 드러냈다.

그는 "갈수록 빈자리가 늘어난다"라며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어도 '집사람이 이것 참 좋아했는데 어떻게 나 혼자 먹지' 생각이 들고 그렇다"라고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래도 그는 오늘도 아픈 마음을 잠시 접어두고 '전국노래자랑'을 위해 달린다. 그는 "힘들 때가 있어도 '즐거운 비명'이라고 했다. '남은 인생, '전국노래자랑'을 통해 얻은 경험으로 즐기며 살겠습니다." /연합뉴스

이영애 스크린 복귀 '나를 찾아줘' 출연

배우 이영애가 14년 만에 영화로 복귀한 작품인 '나를 찾아줘'가 제44회 토론토 국제영화제 디스커버리 섹션에 초청됐다고 배급사 워너브러더스 코리아가 9일 밝혔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토론토국제영화제는 칸·베를린·베니스와 함께 세계 4대 영화제로 꼽힌다. 올해는 다음 달 5-15일 열린다.

'나를 찾아줘'가 초청된 디스커버리 섹션은 해외 신인 감독들의 작품을 알리는 부문이다. 감독의 장편영화 데뷔작이나 두 번째 장편영화를 상영한다.

이영애가 '진정한 금자씨' (2005) 이후 오랜만에 스크린에 복귀하는 '나를 찾아줘'는 6년 전 실종된 아들과 생김새부터 흉터 자국까지 똑같은 아이를 뵈었다는 의문의 연락을 받은 정연이 낯선 마을로 아이를 찾아 나서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이영애 외에 유재명, 이원근, 박현준이 출연하고 김승우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국내에선 오는 11월 개봉. /연합뉴스

방탄소년단 일본 싱글앨범 누적 출하량 100만장 돌파

그들 방탄소년단이 일본에서 낸 싱글앨범이 처음으로 누적 출하량 100만장을 넘어섰다.

일본 레코드협회가 9일 발표한 '골든 디스크 인증 작품'에 따르면 지난달 발매된 이들의 10번째 일본 싱글 '라이츠/보이 워드 러브' (Lights/Boy With Luv)가 100만장 이상 출하돼 '밀리언' 인증을 받았다.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방탄소년단은 일본에서 싱글로 밀리언 인증을 받은 최초의 한국 가수이자 해외 첫 남성 아티스트가 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한국 가수 중에선 보아가 2002·2003·2005년, 소녀시대가 2011년 각각 앨범으로 밀리언 인증을 받았다. 외국 여자 가수 중 싱글로 밀리언 인증을 받은 가수는 머라이어 캐리와 셀린 디옹 등이 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1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 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5:00 2019 메이저리그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재)		00 MBC 뉴스투데이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모두 다 쿵따리	35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닥터 365 35 수상한 잠모
[9]	30 KBS 뉴스	00 여름아 부탁해(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웰컴2라이프(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다큐 공감(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너의 노래를 들려줘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웰컴2라이프(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교육시리즈 55 kbc 2019 연중특별기획 2030 미래리포트 보도다큐 '남도, 미래를 꿈꾸다'
[1]	0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50 제16회 평창 대관령 음악제 1부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0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 2 50 2시 뉴스 이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55 나의 독립 영웅(재)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뽀뽀뽀 모두가 놀자 스페셜 50 뽀뽀뽀 모두가 놀자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0 모두 다 쿵따리(재)	00 웰트베스트 다큐 그곳에 가면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영화가 좋다(재)	00 5 MBC 뉴스 25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7]	00 KBS 뉴스 7 40 우리말 겨우기	50 태양의 계절	30 MBC 뉴스데스크	00 법률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30 여름아 부탁해	30 글로벌24 55 옥탑방의 문제아들	55 웰컴2라이프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1~2부
[9]	00 KBS 뉴스 9			
[10]	00 가요무대	00 너의 노래를 들려줘	05 스트레이트	00 리틀포레스트 1~2부
[11]	00 오늘밤 김제동 40 특집 다큐 전쟁과 일본 제1부 히로히토와 종전 조서	10 안녕하세요 스페셜	05 문화콘서트 난장	2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	30 KBS 뉴스 40 이웃집 찰스(재)	35 비바 K리그	05 스포츠 다이어리 20 웰컴2라이프(재)	40 나이트 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30 한국기행(재)	17:00 EBS 뉴스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20 명탐정 피트
06:00 한국기행(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페파 피그(재)
06: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특목! 보니하니1~5
07:00 로보카 폴리	12:10 극한직업 스페셜	19:00 제로니모 스텐턴의 모험
07:15 꼬마버스 타요	13:00 다큐 오늘	19:30 생방송 판다다
07:30 뽀뽀뽀 뽀로로	13:10 최고의 요리비결	20:00 갤럭시 프로젝트
07:45 페파 피그	13:40 기획특강-지식의 기쁨	20:30 아기 동물 귀여워
08:00 당동당 유치원1~2	14:30 꼬마버스 타요(재)	20:40 세계테마기행
08:30 몬카트	15:00 출동! 피자마 삼총사	(중부유형 사골 유랑기 1부 산너머 그곳에는, 솔로버키아)
08: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5:30 뽀뽀뽀 뽀로로(재)	21:30 한국기행
09:00 마사와 곰	15:45 출동! 슈퍼왕스(재)	(앞마당에서 여름휴가2-달콤한 인생)
09:15 출동! 슈퍼왕스	16:00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21:50 EBS 다큐프라임
09:30 원더볼스	16:15 세미와 매직큐브	22:45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6:30 당동당 유치원1~2(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子	36년생 힘에 부친다면 내려놓아야 맞다. 48년생 즐겨 쓰는 방법대로 이행해야 실수하지 않느니라. 60년생 기쁨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다. 72년생 잘 살펴보고 모색한다면 확실한 대안이 마련되리라. 84년생 상당한 기간을 두고 서서히 유도에 나가자. 행운의 숫자 : 91, 44
 丑	37년생 한계 상황에 이르면서 새로운 국면을 열 것이다. 49년생 빈틈없이 검토하자. 61년생 자신만 만족하지 말고 많이 돌려야 효과를 볼 수 있다. 73년생 감금하게 보완하라. 85년생 정성을 다 하다보면 길한 일로 연결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행운의 숫자 : 01, 86
 寅	38년생 기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50년생 만전을 기해야 한다. 62년생 투철한 의지로써 역량을 발휘한다면 별 문제는 없다. 74년생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실기하게 될 것이다. 86년생 자신의 길만 묵묵히 걸어가면 그만이다. 행운의 숫자 : 96, 85
 卯	39년생 융통성을 발휘하여 파격적으로 처리해야 할 때다. 51년생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야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다. 63년생 연쇄적인 관계에 놓여 있음을 알라. 75년생 상호적이다. 87년생 공들인 노력에 정비례해서 얻은 결과가 나타나리라. 행운의 숫자 : 32, 23
 辰	40년생 작은 것에 집착하다가 큰 것을 잃는다. 52년생 화가 북이 되어 돌아올 것이니 격정하지 말라. 64년생의 레적인 절차를 무시한다면 부조리한 형태로 나타난다. 76년생 해결책이 생길 것이다. 88년생 소중히 여겨 왔던 것이 빛을 보게 된다. 행운의 숫자 : 20, 51
 巳	41년생 부족함을 채우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자. 53년생 미리 대처해 나간다면 방지하리라. 65년생 빈틈없이 도모한다면 기필코 이루어라. 77년생 경험이 야말로 국면을 타개하는 최상의 기준점이다. 89년생 또 다른 관점에서 조명해 보자. 행운의 숫자 : 15, 87

8월 12일(음 7월 12일 辛巳)

 午	42년생 내용의 파악으로 인한 고역이 보인다. 54년생 내 부족한 문제부터 해결하라. 66년생 불청객으로 인해서 많은 시간을 빼앗기겠다. 78년생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되는 날이다. 90년생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봐야 한다. 행운의 숫자 : 69, 27
 未	43년생 직접적이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55년생 참고 있으면 기회는 반드시 다가오게 되어 있다. 67년생 정면으로 돌파해야 위기를 모면한다. 79년생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면 이익이 따른다. 91년생 리듬을 잘 타야만 무탈하다. 행운의 숫자 : 07, 96
 申	44년생 취약점을 보완한다면 따 놓은 당상이로다. 56년생 충분한 설명을 듣지 않는다면 비논리적이다. 68년생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게 되는 양태이다. 80년생 방치 했다가는 갈수록 악화 될 수도 있느니라. 92년생 결정적인 시기에 거의 압박했다. 행운의 숫자 : 93, 39
 酉	45년생 학수고대 해왔던 바가 성사 되리라. 57년생 잔피 부리다가는 크게 실수할 수도 있도다. 69년생 반가운 소식이 있겠다. 81년생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큼 뜻 깊은 체험이 될 것이다. 93년생 변화무쌍하므로 실속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행운의 숫자 : 98, 49
 戌	34년생 고민하지 말고 질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상책이다. 46년생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대국이다. 58년생 호전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70년생 단순하기는 하나 나름대로 장점도 있다. 82년생 작은 것들이 모여서 역할을 하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71, 53
 亥	35년생 걸음도 드러나게 마련이리라. 47년생 생소한 것 같지만 자신이 기억을 못하고 있을 뿐이다. 59년생 기회로 활용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71년생 근본에 대한 원칙을 고수해야 할 시점이다. 83년생 원하는 바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현태이다. 행운의 숫자 : 72, 79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1090-9790-8237